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서 서울경제의 발전방향

서울의 경제규모와 그 역할

-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수위도시로서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 고차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세계 주요도시들과 비교하면 2000년 현재 서울의 인구는 1,030만명으로 뉴욕 800만명보다는 많으며, 도쿄 1,200만명, 베이징의 1,120만명(2001년)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임.
 - 국가전체에서 서울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도쿄 9.4%, 뉴욕 2.8%, 북경 0.9%를 훨씬 상회함. 이를 배경으로 형성된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타 지역의 주요한 시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고 있음.

[표 1] 세계 주요도시의 경제규모 비교

구 분	연도	도시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GRDP비중/ 인구비중	1인당 GRDP (달러)
		만명	국가내 비중(%)	억달러	국가내 비중(%)		
서울	2000	1,030	21.6	904	21.6	1.0	8,771
도쿄*	2000	1,200(810)	9.4(6.4)	7,239	15.0	1.6	60,477
뉴욕	2000	800	2.8	3,865	8.1	2.9	48,256
베이징	2001	1,120	0.9	285	0.3	0.3	2,536

주: * 도쿄=23구+타마지역+이즈제도, ()안은 23구

자료: 1) 서울특별시, [도시비교통계], 2002.

2)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3.

3)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2001,

4) 동경도, [동경도시백서 2002], 2002.

5) <http://www.chijihonbu.metro.tokyo.jp/english/profile/overview3.htm>

- 2000년 서울의 GRDP는 904억 달러로 같은 아시아권의 경쟁도시인 도쿄의 GRDP 7,239억 달러의 13%, 뉴욕의 GRDP 3,865억 달러의 23% 수준임.
 - 서울의 GRDP가 GDP(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6%, 도쿄는 15.0%, 뉴욕은 8.1%, 베이징은 0.3%이므로 경제적인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인구 비중에 대비한 GRDP 비중은 서울 1.0, 도쿄 1.6, 뉴욕 2.9, 베이징 0.3으로 서울과 도쿄는 유사한 수준이나, 서울의 1인당 GRDP는 8,771달러로 도쿄의 60,477달러, 뉴욕의 48,256달러에 크게 떨어져 있음.
 - 이는 서울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반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임.
- 2000년 기준 도시별 취업자 수를 보면 서울 460만명, 도쿄 620만명, 뉴욕 360만명, 베이징 630만명 등이며, 서울의 인구대비 취업자 수는 44.2%로 도쿄의 51.4%, 뉴욕의 45.1%, 베이징의 56.1%에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음.
-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 도시별 산업구조를 보면 서울은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비중이 16:84, 도쿄는 20:80, 뉴욕은 10:90, 베이징은 49:49로 나타나 있음.
 - 도쿄의 경우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있지만 서울보다 견실한 제조업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과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은 뉴욕에 가까운 서비스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주력산업인 생산자서비스업에서 충분한 생산기반의 확보와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표 2] 도시의 산업구조: 취업자 기준

구 분	연도	취업자수		취업자별 산업구조(%)			
		만	인구대비 비중(%)	합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울	2000	460	44.2	100.0	0.1	15.9	84.0
도쿄	2000	620	51.4	100.0	0.0	20.1	79.9
뉴욕	2000	360	45.1	100.0	0.0	10.0	90.0
베이징	2001	630	56.1	100.0	1.7	49.1	49.1

자료: 1) 서울특별시, 2002, [도시비교통계].

2) 통계청, 2001, [지역통계연보].

3) <http://www.chijihonbu.metro.tokyo.jp/english/profile/overview3.htm>

- 시장규모, 인구, 취업자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서울의 수위도시로서 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아직은 거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함.

서울경제의 구조적 특성

- 향후 서울은 제조업의 생산기반 위축과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지만 내수에 근거한 생산자서비스업의 발전전망은 불투명함.
 - 제조업의 성장세가 높은 주변의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북도의 생산자서비스업 성장으로 인하여 서울의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서울의 주력산업인 생산자 서비스업 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재 집행중인 산업발전계획을 보완하여 서울의 생산자서비스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산업의 발전과정에 근거하면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약화되면 생산자 서비스업의 위축이 초래될 것은 자명하며,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 증대로 귀결될 경우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 특히 주요 서비스부문 역시 개방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 대외 경쟁력 기반이 될 집적 경제를 창출해야 하는 서울의 기능약화에 따라 향후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세계 수위 도시간의 경합이 첨예화되고 정보 및 중추 기능이 수위·대도시로의 집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다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인위적인 기능 분산은 서울의 경쟁력을 보다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기업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위도시인 서울의 복합적인 기능 감소는 기업·자본유입의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국내경제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발전방향의 정립을 위하여

- 서울이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는 동시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도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조성된 환경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조건과 생활환경을 외국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함.
 - 세계체제 내에서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편리성 등을 제고하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해야 할 것임.
 - 서울이 가진 중추적인 기능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현

재보다 포괄적인 방향에서 구축·운용하는 것도 서울이 지향해야 할 과제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신의 정보·기술·문화가 결합한 지식기반의 서울형 산업, 사업서비스, 디자인, 문화산업 등을 동시에 육성하는 것도 서울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 서울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에 기여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서울이 수행하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즉, 연구개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의 R&D 기능을 축으로 주변지역의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혁신 인큐베이터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서울의 R&D기능과 주변지역 양산(量産)기능의 결합 등도 서울이 지향해야 할 과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인위적인 분산보다는 역량이 집적되어 있는 현 서울이 기능하여 그 공과가 지역적으로 안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서울 역시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혹은 공동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기능 제고와 정부의 시책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지해명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hmji@kangwon.ac.kr